

# ‘리’ 이해하기

—서양철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윤미

(서울대학교 철학과)

어지럽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그 무엇을 찾으려는 노력은 시대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러한 보편 진리 탐구에 호기심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이 제시한 답안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이성으로만 닿을 수 있는 세계에 보편 진리가 있다고 말했고, 심지어 탐구 결과 보편 진리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현상을 꿰뚫는 그 무엇에 대한 인간의 열망은 실로 다양한 답안을 내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동양철학이 제시하는 ‘리’는 어딘가 특별한 구석이 있다. 서양철학의 전통과 비교했을 때 ‘리’만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리’를 이해하고, 비판해볼 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유학에서 말하는 ‘리’는 분명히 변잡하고 불안정한 세상 이면의 보편 불변하는 그 무엇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원리, 이치’를 가리켜 신유학에서는 ‘리’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를 단순히 서양철학에서 말하는 ‘실체’ ‘절대자’로 치환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 바로 소이연과 소당연이 일치하는 데에 ‘리’만의 특징적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리’의 성격은 소이연과 소당연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소이연이란 쉽게 말해 자연법칙이다. 소이연은 어떠한 사태나 사물에 대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까닭’을 설명한다. 꽃은 왜 봄에 피는지, 물은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지에 대해, 제 3자의 관점에서 관조하며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까닭을 말하고자 한다. 즉 그 사태 자체에 밀착하기보다는 사태에서 한 발짝 물러나 ‘그것이 ~하는 것, ~하는 바’

에 대해 진술하는 것이다.

사물의 리를 궁구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까닭을 궁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두터움, 귀신의 아득함과 드러남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까닭’이 있다. (粹言 2)<sup>25)</sup>

소이연이 자연 현상의 원리를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긴 하지만, 서양에서의 물리적 자연법칙과 정확히 같은 의미에서의 ‘원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서양의 자연법칙과는 달리 소이연에서 말하는 ‘그렇게 되는 까닭’은 자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최초의 원인에 대한 해명이 아니다. 이 둘이 각각 함축하고 있는 물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서양의 자연법칙과 ‘리’의 소이연 모두 ‘x가 왜 그런가’에 대하여 묻는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이 물음은 서양의 자연법칙에서는 x가 그렇게 되는 까닭에 대한 탐구의 시작으로서의 물음이다. 이 물음을 시작으로 x의 원리와 그것을 있게 한 최초의 원인을 탐구하여 결국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물음은 열린 물음이다. 반면, 소이연에서 이 물음은 사실상 답이 정해져있는 물음이다. 물이 왜 흐르고 불이 왜 뜨거운지에 대한 물음 속에는 그것이 ‘리’ 때문임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소이연에서 묻는 ‘그것이 그러한 까닭’에 대한 모든 질문의 답이 이미 ‘리’로 정해져있음으로써, 만물이 운행하는 원리에 대해 ‘리’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금증을 주는 사태 하나하나에 밀착하여 그 개별적인 사태로부터 출발해서 탐구하는 서양 자연법칙과 달리, 소이연은 사물 각각의 원리가 그것을 확장하여 (추) 같은 범위 내에 포섭될 수 있는 범주를 넓혀 가다보면(류) 결국은 만물이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됨을 보여주려고 한다. 소이연의 목적은 서구의 전통처럼 물리법칙의 공식을 ‘발견’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소이연은 ‘리’의 설명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리’는 단순히 현상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리’만

25) A.C. 그레이엄, 이현선 역,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심산, 2011, p. 42.

의 독특함이 기인하는 특징이 바로 소당연이다. 소당연은 ‘~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써,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뜨거움은, 불이 뜨거운 것은, 그것이 본래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불이라면 마땅히 뜨거워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소당연은 어떤 것의 ‘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순히 그것을 정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것이라면 어떠한 해야 하는지 그 ‘의무’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즉, 소이연이 자연법칙이었다면 소당연은 윤리법칙이다. 때문에 소당연은 인간의 덕목에 관한 부분의 설명에서 주로 보인다.

만약,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빈천하게 요절하는 것이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遺書, 23-13)<sup>26)</sup>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치상 마땅히 이와 같은 것’이다. (外書, 2-35)<sup>27)</sup>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소당연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정의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덕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앞서 말한 소이연이 서술적이었다면, 소당연은 규범적인 측면을 지닌다. ‘리’의 독특함은 바로 윤리법칙으로서의 소당연이 자연법칙으로서의 소이연과 일치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된다. 신유학에서는 기술적 속성과 규범적 속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법칙과 윤리법칙이 일치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신유학의 관점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의 ‘스스로 그러함’, 즉 물이 물인 까닭에 서이기도 하지만, 물이라면 마땅히 따라야하는 이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소이연이 곧 소당연이라고 보는 이와 같은 방식은, ‘리’가 만물에 대해 취하는 정의가 서양철학의 전통과는 다르게 보다 질적이고

26) *Ibid.*, p. 43.

27) *Ibid.*, p. 43.

양면적이도록 한다. 서양철학의 전통에서는 보편 진리를 말할 때 ‘what?’ 즉 ‘x가 무엇이나’의 물음을 던진다. 이는 대상에 대한 단순한 정의의 차원이다.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접근도 불변하는 x가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반면, ‘리’는 ‘x가 무엇이나?’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에 x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나?’ 식의 접근에 더 가깝다. 즉 x의 자격에 대해 묻는다. x가 x려면 단순히 형식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x 다음’이라는 내면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려면,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남성’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식에게 보살핌과 가르침을 주는 등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맹자』의 양혜왕 下편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다. 여기서 제나라의 선왕은 폭군 주왕에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의 예를 들며 맹자에게 어떻게 한낱 신하가 왕을 시해할 수 있냐고 묻는다. 이에 맹자는, ‘인을 해치는 자를 흉포하다 하고, 인을 해치는 자를 잔학하다 한다. 흉포하고 잔학한 인간을 한 사람의 필부라고 한다. 나는 한 사람의 필부인 주를 해쳤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대답한다. 맹자는, 임금이 단순히 임금의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임금인 것이 아니라, 그가 임금의 소당연, 즉 임금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이치에 따를 때에 임금의 ‘리’를 만족시키게 되고, 이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임금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리’는 단순히 사전적이고 일면적인 정의에 그치는 서양철학의 전통과는 다르게, 사후적이며 양면적이고 질적이다. 또한 그 이름에 걸맞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자가 말하는 정명론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자연법칙과 윤리법칙을 같은 반열에 놓는 ‘리’는, 단순히 진리에 대한 정의의 ‘제시’만이 아니고, 진리의 세계에 동참하기 위한 조건과 의무를 요구한다. 그래서 ‘리’는,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마냥 형이상학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비유에서 나타나는 서양철학과의 차이에서도 보여진다. 플라톤은 그가 말하는 절대 불변하는 진리인 이데아를 비유할 때 ‘태양’을 예로 든다. 땅 위에 높이 떠서 빛나는 태양은 땅을 굽어 살피

고, 그 진리의 빛으로 땅 위의 사물들을 비춘다. 특히 진리 인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플라톤이 예로 든 ‘동굴의 비유’에서, 이데아는 형이하학적 현실 세계와 분리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현실을 덮고 있는 인간들은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그곳에 닿기 위해 실명의 고통까지 감수하며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반면 신유학에서의 ‘리’는 종종 ‘결’로 비유된다. 나무의 결이나 나이트, 옥에 난 결로 비유되고, 혹은 ‘길’에 빗대어지기도 한다. 이는 ‘리’가 서양의 이데아처럼 공중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채로, 하나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법칙과 윤리법칙을 등치시킴으로써 ‘리’는 도덕법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서양철학에서는 도덕법칙에 대해 논할 때, 그 법칙의 ‘원리’에 대해서만 제시한다. 흄은 개인 내부의 ‘도덕감’을 도덕법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말하고, 칸트는 이성에서 선형적으로 주어져있는 도덕법칙의 원리에 따라 도덕을 행위 할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서양철학에서는 도덕 행위의 원리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한다. 반면 ‘리’는 소이연과 소당연이 일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함’, 즉 사실이 곧 당위가 되므로 좀 더 구체적이다. 앞서 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예처럼, 임금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치, 신하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치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각각의 대상에 따른 행동 지침을 제시해준다. 물론 유학에서 서양철학의 ‘도덕감’이나 ‘선형적 이성원리’와 같은 큰 틀의 원리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자 역시 행동의 기준으로써 仁과 禮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도덕 행동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원리 말고도,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지침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양철학과 다른 ‘리’만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Graham, A. C., 『정명도와 정이천의 철학』, 이현선 옮김, 심산, 2011.